

올여름 평년보다 덥고, 많은 비 가능성

- (기온) 6월과 8월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%,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%
- (강수량) 6월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%, 7~8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%
- (태풍) 여름철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이 각각 40%
- (엘니뇨) 여름철 동안 점차 약화되어 중립 또는 라니냐 전환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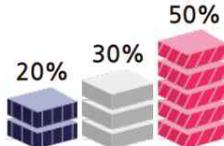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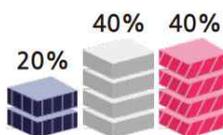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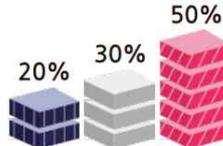
□ 기상청(청장 유희동)은 대기, 해양 등의 기후 현황을 분석하고, 기상청을 비롯한 전세계 기상청의 기후예측모델 결과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‘2024년 3개월전망(6~8월)’ 을 발표하였다.

□ [기온] 6월과 8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%,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%로 전망된다.

○ 우리나라 여름철 기온에 영향을 주는 열대 서태평양, 인도양 및 대서양의 해수면온도가 봄철 동안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유럽 지역 눈덮임이 평년보다 적은 상태로,

○ 이러한 상태는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을 강화시켜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남풍류 유입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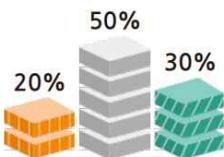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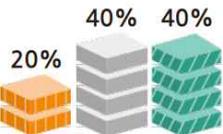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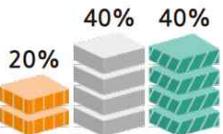
○ 그러나, 봄철 티베트 눈덮임이 평년보다 많은 상태로 여름철에 티베트 고기압 발달이 지연될 경우, 동아시아 상공에 기압골이 유도되어 우리나라로 찬 공기가 유입될 수 있어 기온이 하강할 가능성도 있다.

	6월	7월	8월
평균 기온	 <p>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%임</p>	 <p>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%임</p>	 <p>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%임</p>
평년범위	21.1~21.7°C	24.0~25.2°C	24.6~25.6°C

□ [강수량] 6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%, 7~8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%로 전망된다.

○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을 강화시키는 열대 인도양 및 대서양 고수온 상태는 북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을 평년보다 서쪽으로 확장시킬 수 있고 우리나라로 습한 수증기 유입을 강화할 수 있다.

○ 그러나, 우리나라 상층에 저기압성 순환이 강화될 경우 북쪽의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어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다.

	6월	7월	8월
강수량	 <p>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%임</p>	 <p>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%임</p>	 <p>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%임</p>
평년범위	101.6~174.0mm	245.9~308.2mm	225.3~346.7mm

□ [태풍]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평년(여름철 평균 2.5개)과 비슷하거나 적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.

※ (적을 확률) 40%, (비슷할 확률) 40%, (많을 확률) 20%

- [엘니뇨·라니냐] 6~8월 동안 중립 또는 라니냐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.
- 유희동 기상청장은 “최근 동남아지역에 40도가 넘는 폭염, 아랍에미리트 홍수 등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빈발한 가운데, 우리나라도 평년보다 덥고 많은 비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.” 라고 강조하면서, “올여름 이상고온,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긴밀한 소통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” 라고 밝혔다.
- 한편, 3개월전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‘날씨누리 - 날씨 - 장기전망 - 3개월전망(해설서)’ 및 기후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별첨 3개월전망 통보문 및 3개월전망 해설서

담당 부서	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	책임자	과 장	조경숙 (042-481-7390)
		담당자	사무관	임교순 (042-481-7393)
<공동>	예보국 국가태풍센터	책임자	센터장	이현수 (064-909-3959)
		담당자	사무관	송수환 (064-909-3970)

